



The 20th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amp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0기 봉사활동 “인도네시아 찰레본에 ‘삶’을 선물하다”

함께 더 멀리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0기 인도네시아 지역 봉사단원들이 1월 29일부터 2월 10일 까지 11박13일의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 인근 지역에 파견된 79명의 청년봉사단은 건축, 교육 봉사 및 문화 교류를 마치고 돌아왔다.

글=박현희 / 사진=에피무브 20기 현대건설 홍보단 주태(명지대), 박은경(숭실대), 안지예(중앙대)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s volunteering activities by joining forces with the Cirebon II Thermal Power Plant project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이하 ‘해피무브’)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으로 그룹사와 NGO가 협력해 기획·진행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이다. 2008년 창간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20기 봉사단은 올 1~2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중국 등 총 4개 국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 현지 주민 및 대학생과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1973년 자고라위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35개 공사(약 38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활동 지역은 우리 회사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이 위치한 찰레본(Cirebon)으로 정했다. 해피무브는 찰레본 내 3개 마을을 방문해 빈곤가구 8가구 신축, 초등학교 화장실 4개 건립, 벽화 작업, 어린이 교육 지원, 한국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은 8채의 작은 집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1월 30일 해피무브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 사무소였다. 해피무브는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직원들에게 찰레본 주민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최병길 공무팀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찰레본은 도로와 건물 시설이 열악하다. 아이들이 악취가 풍기는 곳에서 맨발로 뛰다니는 경우가 많고 집과 위생시설이 부족해 거리에서 생활한다. 이번 해피무브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활동은 마을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노력 봉사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주일 만에 작은 가족 8채 짓기’라는 미션을 받은 해피무브는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세대별로 10명씩 팀을 나눴다. 또 땅을 일구는 팀, 철근을 자른 후 고리를 만드는 팀, 토대를 만드는 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일사불란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이어졌다. 기둥 골조를 세우거나 거푸집을 만들고, 정화조를 파는 일 등은 모두에게 생소했다.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마저 “군대 시절만큼 힘들다”고 말했다고. 일주일간 땀 흘린 끝에 8가구가 편안하게 살 집을 완성했다. 해피무브 정원연(영남대) 학생은 “처음에는 안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다. 해피무브 동료들과 함께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해 준 동료들이 자랑스럽고 이 작은 집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수와 감탄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식 현장

건축 봉사단으로도 바쁜 일정이었지만, 해피무브는 현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봉사도 준비했다. 2월 3일 오전, 현지 초등학교 두 곳을 방문해 교육 봉사를 진행한 봉사단원들은 에코백·소원인형·한글 이름 배지 만들기 등을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해피타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해피무브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무브가 가장 손꼽아 기다린 것은 2월 8일에 있었던 현장식이였다. 현장식은 총 1, 2부로 진행했다. 찰레본 군수 및 마을 이장들의 축사와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하업 현장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는 가옥 현장식과 수료증 수여식 등 해피무브의 공로를 치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2부는 문화 교류 시간이었다. 해피무브는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온 부채춤, 태권무, 풍물놀이 등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현지 주민들도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화답했다. 현장식을 지켜본 찰레본 II 화력발전소 현장 배성훈 과장은 “해피무브의 공연에 모든 사람이 연신 박수를 치고 ‘Bagus(최고!)’를 외쳤다. 우리 현장은 거주 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해피무브 활동은 앞으로의 현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찰레본 지역 사람들과 친한 교류를 마치고 돌아온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이 활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해피무브에게도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Mini Interview

<p>대학생 해피무브 윤원수(인하공전대)</p> <p>“저에게 해피무브란 복숭아입니다. 삶에서 방향성을 잃었을 때 해피무브에서 배운 가치와 경험이 큰 자원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 큰 감명을 받았습니. 인도네시아 찰레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자랑삼아 앞으로의 제 삶에 잊지 않게 꾸러나가고 싶습니다”</p>	<p>대학생 해피무브 여은아(인천대)</p> <p>“건축 봉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지만, 가장 기다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데다 팀원들과 끈끈한 우정도 다질 수 있었거든요. 가족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배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활동은 글로벌 청년으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p>	<p>대학생 해피무브 최실아(대구교육대)</p> <p>“인도네시아 초등학교생들에게 제가치기를 가르쳤는데,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들었던 저와 달리 아이들은 사뭇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집중해서 반응했는데요. 기분이 좋았지만,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눈빛이 선하네요. 해피무브 20기는 제게 다시 웃을 20대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p>
--	--	---

Interview

‘일도 CSR도 열정적으로!’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 직원 인터뷰

이번 해피무브가 특별한 점은 봉사활동의 기획과 활동에 현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회사 찰레본II 화력발전소 현장은 본사 CSR팀과 함께 1년6개월 전부터 해피무브 인도네시아 활동을 준비했다. 현장 직원들이 직접 전해주는 해피무브 봉사활동 비하인드 스토리.

- 이런 해피무브 활동 지역이 인도네시아 찰레본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태와 관리팀장(이하 ‘김 팀장’) 석탄화력발전소는 탈황 설비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춰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찰레본 지역 주민의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현장은 마을 주민의 거주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2억6000만 명)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런 해피무브 활동 지역이 인도네시아 찰레본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 팀장 해피무브와 함께 벽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짧은 패기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저 역시 찰레본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기 현장이다 보니 해피무브에게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김 대리 단연 해피무브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나린 타국 땅에 울려 퍼진 아리랑과 선이 고왔던 부채춤, 한국인의 강인한 모습과 흥을 보여준 태권무와 풍물놀이 등 하나같이 흠뻑 볼 수 없는 공연들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갈채와 여러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 현장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CSR 활동이 있나요?**
김 팀장 당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인도네시아 찰레본 지역에 다양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
- 현장 직원들이 해피무브가 지은 가옥에 세심하게 화력 조기를 입은 두 사람이 현장 직원 김태와 관리팀장(원혁)과 김민성 대리다.**

The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or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ppy Mover”) was established by Hyundai Motor Group as one of its most representa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appy Mover is a volunteer organization planned and operated jointly by affiliate companies of Korea’s largest automaker and NGOs. Happy Mover, which celebrates the 1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s year, biannually selects about 1,000 young people on an annual basis and has deployed approximately 10,000 college students to 21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20th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amp visited four countries including Vietnam, India, Indonesia and China between January 29 and February 10. The participant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promoted cultural exchanges among local residents and college students by conducting a wide range of volunteer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houses and schools, the preservation of world heritages, the campaigns and educ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 Among four countries, Hyundai E&C visited Indonesia as it is working on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roject and the Cirebon II Thermal Power Plant project in the country.

Happy Mover put their major efforts into building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local communities. With an aim to construct eight small houses within one week, Happy Mover divided the volunteers into eight teams consisting of 10 members each to effectively perform the construction work. For about one week from January 31 to February 7, the participants set up frameworks, build forms and dug up septic tanks. Despite the seemingly endless shoveling and hot and humid climate, they did their utmost to build homes for eight families in one week.

“I never dreamed at first that we could finish the construction. I believe this is attributed to efforts of Happy Mover friends to work together step by step. I am very proud of my team members, and I hope these small houses would give great support and comfort to local residents,” said Jung Won-yeon from Yeungnam University.

Happy Mover also prepared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local children. In their visits to two local elementary schools on February 3, the participants excited students’ curiosity by providing various handcraft programs including eco canvas bags, wish dolls, name badges written in Korean,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villages made of sorghum straws, and slime soaps.

The most anticipated dedication ceremony was held on February 8. The first session started with the congratulatory addresses by Cirebon city governor and heads of villages and the greeting speech by project manager of the Cirebon II Thermal Power Plant project, followed by the dedication ceremony and programs designed to appreciate the service of Happy Mover. During the second session, the participants showed characteristics of Korea through cultural performances such as Korean fan dance, taekwon dance, and pungmul, or one of Korea’s traditional music styles.

We all hope that the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orps would become a driving force to make the world more beautiful and serve 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nts to grow into global leaders.

